1. 해상 자위대의 출현 배경

모두에게 아픔을 남겼던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종전과 동시에 GHQ에 의해 박탈되었으며, 일본 제국의 헌법인 일본 제국 헌법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1946년 2월 13일 GHQ에 의해 헌법 개정 지침과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日本國)이 발표되었으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었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평화 헌법 또는 전후 헌법 혹인 맥아더 헌법 이라고도 하는 이 헌법에 의해 국가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국주의였던 일본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척 이후 무조건 항복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GHQ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변질된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일부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그리워 하고 있으며 자위대 전력을 군 전력으로써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 헌법 9조를 2020년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과 희망의당, 일본 유신회 등을 포함하면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3분의 2를 초과한다.

해상 자위대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이 1954년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를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2. 현대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전력

현재 일본 해상 자위대의 규모는 약 46000명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해병대 병력인 28000명을 제외하면 39000여명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7년 12월 16일 니혼게자이 신문에 의하면 연간 예산은 약 1조1954억엔 (한국돈으로 약 52조 490억 달러 정도의 규모) 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해군 예산인 약 4조4천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해상 전력은 약 131여척의 군함과 357기의 항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한국 해군력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러시아 해군과 대등 혹은 이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전력이다.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전투함, 잠수함을 배치하며 또한 자국에서 항공모함을 건조 및 운용할 수도 있다.

일본의 대함 미사일 플랫폼 즉 전투 수상함은 아타고급, 공고급, 아키즈키급 (준 이지스함), 다카나미급, 무라사메급, 하타카제급, 아사기리급 하츠유키급, 아부쿠마급 (호위 구축함), 아사히급 (준 이지스함) 하야무사급 (미사일 고속정)으로 종 55척 440발을 장착할 수 있다.

3. 해상 자위대의 편성도

해상자위대는 방위성 산하 조직으로 해상자위대의 기동운용이 행해지는 자위함대. 주로 해외 파견이나 항로 방위를 담당한다.

자위함대의 종류로는 제1 호위대군(第1護衛隊群) (요코스카), 제2호위대군(第2護衛隊群) (사세보), 제3호위대군(第3護衛隊群) (마이즈루), 제4호위대군(第4護衛隊群) (구레), 지역배비부대(地域配備部隊), 해상훈련지휘군(海上訓練指導隊群), 제1해상 보급대((第1海上補給隊), 제1수송대(第1輸送隊), 제1해상훈련지원대(第1海上訓練支援隊)

항공집단(航空集団) 잠수함대(潜水艦隊) 소해대군(掃海隊群) 정보업무군(情報業務群)

해양업무군(海洋業務群) 개발대군(開発隊群) 특별경비대(特別警備隊) 호위함 입입검사대(護衛艦付き立入検査隊)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일본 열도의 연안을 담당하는 연안 해군인 마이즈루 지방대, 사세보 지방대, 구레 지방대, 요코스카 지방대, 오미나도 지방대가 있다. 위 지방대의 임무는 주로 일본 열도를 방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 외에도 교육항공집단, 연습함대, 시스템통신대군, 해상자위대경무대, 잠수의학실험대, 인쇄보급대, 도쿄 업무대, 도쿄음악대가 있다.

4. 한국과 일본의 해상력 비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 둘 중 누가 더 쌜까?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당한 여러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과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독도 영토분쟁 위안부 문제 등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는 낙관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는 지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전쟁이 어떠한 문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우선 현대 전면전은 타 군의 개입 없는 순수한 해군 vs 해군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자위대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과 육지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내해인 한국과 일본의 주변 해역을 고려 했을 때 양측 해군 전력의 전략-전술적 기동은 제한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굳이 순수한 해군력으로만 따지자면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하여 심각한 열세에 있다.

플랫폼 (함정) 들의 총 배수량과 숫자, 성능 모든 것이 일본에 비해 한국 해군은 뒤쳐지고 있다. 세종대왕급으로 가면 한국의 플랫폼이 배수량이 더 크고 성능도 더 우월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3척 뿐이다. 이를 제외하면 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이는 우리나라와 아직도 전쟁중인 북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에서 발표한 2017 각 군별 예산 현황은 총 23조원.

그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인 13.9조원이 육군에 투자된다. 해군은 4조원 이라는 각 군별 예산 중 에서도 가장 적게 받고 있으므로 우리의 해상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건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다.

대함 플랫폼은 일본 총계 55척 440발 한국 57척 352발로 한국이 2척 더 많지만 제대로된 지대함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량의 지대함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 완료된 상황이다.

GOF(globalfirepower 세계 군사력 순위) 7위인 일본과 12위인 한국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력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

일본은 GDP 대비 1%만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두배가 훨씬 넘는 GDP 대비 2.7%의 금액을 쓰고 있는데도 지출이 오히려 일본이 더 많다.

국방력은 좋은 기술과 무기는 필수불가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보다 국방력이 앞선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봐서 한국의 완전열세로 판단된다.